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빵

빈들의 저녁, 바람마저 허기를 안고 떠돌 때
 주님의 눈길은 먼저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셨네.
 다섯 개의 빵, 두 마리의 물고기, 작은 손의 믿음 하나,
 그것이 하늘에서는 넘치는 은총의 시작이 되었네.

떼어 주실수록 사랑은 더욱 커지고,
 나누어 주실수록 생명은 더욱 깊어졌네.
 가난한 손은 하늘을 닮아 넉넉해지고,
 비어 있던 마음은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오르네.

오늘도 내 삶의 작은 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쪼개진 사랑으로 세상을 배불리시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8/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22,965

현재 참가 인원 - 65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26

예물 준비 성가 : 215, 511

성체 성가 : 502, 496

파견 성가 : 31

연중 제17주일(7/26)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2명

66명

213명

72명

42명

445명



본당 설립 50주년 축하



하늘뜨락제 2026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교우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 하늘뜨락제를 개최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모여 즐거운 축제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사 내용

- 바자회 ● 50년 역사 사진전 ● 노래자랑 및 축하 공연
- 먹거리 장터 & Beer Garden ● 미술 전시회 ● 어린이 놀이동산

❖ 접수 기간 및 문의 : 8월1일(토)~8월16일(주일)

바자회 관련 : sbaek@ymail.com

미술품 관련 : 253-330-3137

전체 행사 문의 : 206-412-8562 (50주년 준비위원회)

하늘뜨락제 정보

1. 하늘뜨락제 쿠폰(화폐) 판매

- 하늘뜨락제 쿠폰 구매는 구역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늘뜨락제 행사의 모든 거래는 성당에서 발행한 쿠폰으로 거래됩니다.

날짜	구매 장소	Bonus Ticket
현재 - 8월 9일	구역장을 통해 구매	\$100불 구입시 \$10 Bonus
8월 9일, 16일	성당 로비	\$100불 구입시 \$10 Bonus
행사 당일 (8월22일)	하늘뜨락제 본부석 (CASH ONLY)	Bonus 없음

2. 바자회 물건을 수집 & 접수합니다.

접수 날짜와 시간	8월 2일, 9일, 16일 / 오전 9:00 - 10:00 & 11:30 - 오후 1:00
접수 장소	성당 친교실
구역별 접수	구역장님들께서는 직접 물품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접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접수	개인적으로 바자회 물품을 기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8월 9일과 16일 두 날짜에 성당 친교실로 가져오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물품의 상태에 따라 접수 여부는 당일 운영진에서 결정합니다.

일시 : 8월 22일(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 장소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8/14 (금) 오후 7:00(오전 10시 미사 없음)
- 8/15 (토) 오전 10:00
- * 8/15 (토) 오후 7:00(연중 제20주일 미사)

- 8/20(목) 오전 10:00 (오후 7시 미사 없음)

-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 8/22 (토) 오전 9:30
- * 8/22 (토) 오후 7:00(연중 제21주일 미사)

- 8/23(주일) 오전 10:00
(오전 8:00, 11:30, 오후 5:30 미사 없음)

2 구역의 날

- 일시 : 8/9(주일) 교중 미사 후
하늘뜨락제 준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
시기 바랍니다.

3 하늘뜨락제 단체장 회의

- 일시 : 8/9(주일) 12:30
- 장소 : 101호실
하늘뜨락제 관련 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행
사별로 그동안 준비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
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
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5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
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16/2026
- 대상 : 전신자

6 성 김대건 한국학교 학생 모집

2026-27년도 1학기 학생 모집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
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개강일 : 9/11(금요일) , 9/12(토요일)
- 대 상 : 만 4세 이상 부터

7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힘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입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이사 55,1-3
<와서 먹어라.>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2독서로마 8,35.37-39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
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4,13-21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
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유주연 이춘자 이문성 한천혜 전윤원 박군조 유영림 박원규 김재호 문상용 신철순 김경화 김한웅 박애령 조항영 이경원 이태경
김요셉 이진만 반성환 김형석 이운선 서용원 황길수 김영환 김태자 오세영 박수익 오면수 문범기 이용명 황성만 차상철 이정원
유경종 이상철 Sun Ki Choe Kyung Y Park

[교무금 Push Pay] 박정임 손윤자 안마슈 안정희 오영주 박주원 서은지 김현근 유현주 성효진 황현선 이상철 윤성욱 전영건 장경화 오영주

[감사헌금] 임동연 김종국 정순도 박찬영 **[꽃 봉헌]** 민들레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꽃 봉헌
\$6,583.00	\$10,310.00	\$4,520.80	\$230.00	\$100.00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구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بل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룸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atering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 디 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타)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8/27/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美 주교단 "낙태약 · 체외 수정 확산 저지" ... 전국적 기도와 행동 촉구

생명 존중 가치 위협하는 원격 약물 낙태와 배아 파괴 우려

미국 가톨릭 주교단이 급증하고 있는 낙태율과 낙태 유도 약물의 접근성 확대에 맞서 전국적인 기도와 생명 수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모든 낙태는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이자 산모의 깊은 고통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낙태율이 비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건강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원격 진료 통한 낙태약 처방과 온라인 판매 강력 비판

주교단은 특히 미 식품의약청(FDA)이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처방하고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FDA의 이러한 조치가 전국적인 우편 주문 낙태 산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자궁 내 생명을 보호하려는 주 법률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교들은 "이 때문에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적 감독 없이 집에서 홀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폭력적인 파트너나 인신매매범에 의한 착취 기회마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편을 통한 낙태약 배송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교회의는 오는 10월 '생명 존중의 달'을 맞아 모든 가톨릭 신자가 낙태약 확산을 막기 위한 기도와 행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 '생명의 수호자 성 요셉'의 전구를 구하고 낙태약 유통과 관련

된 제약회사와 약국에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미 주교, 체외 수정 보험 적용 확대 거부 촉구

미국 주교단은 또 지난 13일 노동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체외수정(IVF)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규제안을 거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교회의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체외수정 시술은 낙태만큼이나 많은 태아를 죽이거나 냉동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외수정 과정에서 매년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이상의 인간 배아가 파괴되거나 비인도적으로 냉동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배아를 선택하거나 폐기하는 유전자 검사를 '현대판 디스토피아적 우생학'으로 규정하고 체외 수정을 대신해 자연적 임신을 돕는 '회복적 생식 의학'에 대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 법무장관 후보, '낙태 반대법' 시행 약속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집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낙태약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코스톡법' 등 연방 낙태 반대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라이브 액션(Live Action) 등 생명 옹호 단체들이 미국 최대 낙태 기관인 '플랜드 패런트후드'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플랜드 패런트후드 측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 4,700만 달러 규모

의 대형 정치 캠페인을 펼치며 낙태 반대파 의원들에 맞서고 있다.

주별 입법 지형도 엇갈리고 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태아 생존 가능 시점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민 투표안이 표결 안건으로 확정됐다.

반면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 후 살아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거나 내버려둘 경우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낙태 생존자 보호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화학적 약물 낙태' 의존 낙태 건수 증가

최근 거트마허 연구소 등의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전체 낙태 건수는 원격 진료를 통한 '화학적 약물 낙태'의 급증으로 인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첫 3개월간 낙태 건수는 29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낙태 시술의 약 27%가 원격 진료를 통한 약물 복용으로 이루어졌다.

생명 옹호 단체들은 "우편 주문을 통한 무분별한 약물 낙태로 매년 전국적으로 110만 건 이상의 생명이 스러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오프라인 병원에서 온라인 약물 유통으로 낙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 보호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법적·윤리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평화신문 제1869호
2026년 07월 26일 연중 제17주일
뉴스>가톨릭>세계교회
서종빈 선임기자